

中國東北地域(滿洲)의 民族獨立運動

朴 永 錫*

〈目 次〉	
I. 서 論	IV. 민족유일당운동과 1930년 대의 무장투쟁
II. 독립운동기지의 건설과 독립 전쟁의 전개	V. 결 論
III. 독립운동단체의 정비와 三府 의 형성	

I. 서 論

1910년 일제에 의해 한국이 강점되자 국내에서 활동하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보다 강렬하고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중국동북지역·중국본토·러시아령·미주 등 해외로 망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해외망명 독립운동가들이 추구하던 민족독립운동의方略은 개인별, 단체별,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 중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중국동북지역은 국내와 인접해 있고, 다수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으므로 타 지역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에 비해 특히 무장투쟁방략을 지지 실현코자 하던 지사들이 많이 망명했던 곳이며, 실제 청산리전투, 봉오동전투 등 많은 독립전쟁이 이 지역의 독립운동단체들에 의하여 전개되었던 지역이다.

본고에서는 중국동북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의 전체적인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지역의 독립운동을 독립운동기지의 건설과 독립전쟁의 전개, 독립운동단체의 정비와 三府의 형성, 민족유일당운동과 1930년대의 무장투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의 특징을 유출해 보고자 한다.

II. 독립운동기지의 건설과 독립전쟁의 전개

1910년을 전후하여 중국동북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립전쟁론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독립전쟁론이란, 일본제국주의가 대륙침략전쟁책의 일환으로 한국을 강점한 데 이어 중국·러시아·미국 등을 침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수립된 대일항쟁 방법론이다. 즉 일제는 필연적으로 중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미일전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므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 한국인은 대일독립전쟁을 감행하여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은 무장세력의 양성과 군비를 갖추면서 독립운동의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전제 아래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그 첫단계 사업은 민족정신이 투철한 인사들을 집단적으로 해외에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안은 新民會에 의하여 구체화되었으니, 이들은 1910년을 전후하여 중국동북지역에 한민족을 집단적으로 망명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이 중국동북지역을 망명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매우 가깝다는 지리적

에 비해 특히 무장투쟁방략을 지지 실현코자 하던 지사들이 많이 망명했던 곳이며, 실제 청산리전투, 봉오동전투 등 많은 독립전쟁이 이 지역의 독립운동단체들에 의하여 전개되었던 지역이다.

본고에서는 중국동북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의 전체적인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지역의 독립운동을 독립운동기지의 건설과 독립전쟁의 전개, 독립운동단체의 정비와 三府의 형성, 민족유일당운동과 1930년대의 무장투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의 특징을 유출해 보고자 한다.

II. 독립운동기지의 건설과 독립전쟁의 전개

1910년을 전후하여 중국동북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립전쟁론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독립전쟁론이란, 일본제국주의가 대륙침략전쟁책의 일환으로 한국을 강점한 데 이어 중국·러시아·미국 등을 침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수립된 대일항쟁 방법론이다. 즉 일제는 필연적으로 중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미일전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므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 한국인은 대일독립전쟁을 감행하여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은 무장세력의 양성과 군비를 갖추면서 독립운동의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전제 아래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그 첫단계 사업은 민족정신이 투철한 인사들을 집단적으로 해외에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안은 新民會에 의하여 구체화되었으니, 이들은 1910년을 전후하여 중국동북지역에 한민족을 집단적으로 망명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이 중국동북지역을 망명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매우 가깝다는 지리적

인 이점, 둘째, 1860년대부터 한국인이 이주하여 당시 재만한인사회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는점, 셋째, 일본의 압력이 국내보다 덜 미치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한국이 강점당하자 신민회의 계획에 따라 西間島 지역에는 耕學士, 扶民團, 新興講習所 등이 조직 운영되었다. 그리고 北間島 지역에서는 明東村이 독립운동기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 이러한 독립운동기지의 건설은 이 지역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한 한국독립운동의 확대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3.1운동 이후의 본격적인 대규모 독립전쟁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중국동북지역에서 독립운동단체들이 무장세력을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을 무렵, 국내에서는 3.1운동이 거족적으로 일어났다. 3.1운동을 통해 한민족은 평화적인 시위로서 조국의 광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민족은 곧 이것이 제국주의의 기본 속성을 간파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투쟁방략이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무장투쟁론이 적극 대두되었으며, 모든 재만동포들의 절대적인 지지하에 각 독립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70여개의 독립군부대가 편성되었다. 이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한반도에 침투, 일본군 국경수비대를 교란시키는 무장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대표적인 무장투쟁으로는 삼둔자전투, 청산리전투, 봉오동전투 등을 들 수 있다.

청산리전투와 봉오동전투에서 크게 패한 일제는 군대를 대거 중국동북지역에 출동시켜 독립군을 섬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미 병력과 무장에서 열세였던 재만독립군의 주력부대는 소·만 국경지대로 이동한 뒤였다. 이에 본격적인 일본군은 재만한인들이 살고 있는 부락들을 습격, 방화하고 죄없는 양민들을 다만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구 살상하였다.

Ⅲ. 독립운동단체의 정비와 三府의 형성

1920년 말을 전후하여 간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주요 독립군 부대들이 소련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간도지역에는 상당수의 독립군들이 잔류하여 비록 위축된 상황에서나마 항일투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서간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대표적인 단체로는 대한독립단, 광복단, 광복군총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효과적인 대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1922년 대한통의부를 조직하였다.

한편, 북간도지역의 독립운동단체들은 서간도에서와는 달리 조직을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통합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20년 일본군의 「간도출병」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독립운동단체들은 일본군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일부지역을 제외한 북간도 일대에서 자체 재정비와 복원에 주력하였다.

1922년 8월말 서간도에서 통의부가 결성되었으나, 곧 통의부와 의군부로 나뉘어져 대립하게 되었다. 이에 통의부의 군사조직인 의용군은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제휴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23년 8월, 의용군은 통의부와 의 관계를 청산하고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의 陸軍駐滿參議府가 되었다. 통의부의 의용군이 참의부를 조직하자 통의부를 비롯하여 갈림주민회, 광정단 등이 중심이 되어 1924년 11월 25일 정의부를 조직하였다. 1925년 3월 10일에는 북만지역의 영안현 영안성내에서 신민부가 조직되었다.

Ⅳ. 민족유일당운동과 1930년대의 무장투쟁

1925년 6월, 일제는 한국에대한 식민지 지배통치에 위협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요령성에서의 독립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고자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중국동북군벌 사이에 소위 「三矢協約」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독립운동의

Ⅲ. 독립운동단체의 정비와 三府의 형성

1920년 말을 전후하여 간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주요 독립군 부대들이 소련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간도지역에는 상당수의 독립군들이 잔류하여 비록 위축된 상황에서나마 항일투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서간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대표적인 단체로는 대한독립단, 광복단, 광복군총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효과적인 대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1922년 대한통의부를 조직하였다.

한편, 북간도지역의 독립운동단체들은 서간도에서와는 달리 조직을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통합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20년 일본군의 「간도출병」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독립운동단체들은 일본군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일부지역을 제외한 북간도 일대에서 자체 재정비와 복원에 주력하였다.

1922년 8월말 서간도에서 통의부가 결성되었으나, 곧 통의부와 의군부로 나뉘어져 대립하게 되었다. 이에 통의부의 군사조직인 의용군은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제휴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23년 8월, 의용군은 통의부와 의 관계를 청산하고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의 陸軍駐滿參議府가 되었다. 통의부의 의용군이 참의부를 조직하자 통의부를 비롯하여 갈림주민회, 광정단 등이 중심이 되어 1924년 11월 25일 정의부를 조직하였다. 1925년 3월 10일에는 북만지역의 영안현 영안성내에서 신민부가 조직되었다.

Ⅳ. 민족유일당운동과 1930년대의 무장투쟁

1925년 6월, 일제는 한국에대한 식민지 지배통치에 위협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요령성에서의 독립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고자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중국동북군벌 사이에 소위 「三矢協約」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독립운동의

조건이 악화되자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에서는 以黨治國만이 분산된 독립운동세력을 통합하고 민족의 역량을 이념적으로 집결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첩경이라 생각하여, 민족유일당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중국본토에서 전개된 이 운동은 국내에서는 신간회운동으로 나타났으며, 중국동부지역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7년 4월 15일 길림성 신안둔에서는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정의부, 한족노동당 등 독립운동단체의 대표 52인이 모인 가운데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임에서 유일당을 조직하는 방법론에 이견을 보여 독립운동단체들이 분열 통합되었다. 1928년 5월 기존단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전민족유일당촉성회를 기존단체의 존재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전민족유일당협의회를 각각 조직함으로써, 민족유일당을 만들기 위한 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처럼 민족유일당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은 계속하여 독립운동진영의 통합만이 일제를 한국으로부터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략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전민족유일당촉성회파들은 1928년 12월 혁신의회를 조직하였다. 이 혁신의회는 발전적인 해체를 거듭하여 1929년에는 한족총연합회로, 1930년에는 한국독립당, 한족자치연합회, 한국독립군 등으로 변화 발전하였다.

한편, 전민족유일당협의회파는 1929년 4월 길림에 모여 국민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0일에 개최된 제1회 중앙의회에서, 국민부는 동포사회의 자치 행정만 담당하고 혁명사업은 전민족유일당조직동맹이 수행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12월에 조선혁명당을 창당하였으며, 아울러 당군으로서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였다.

1931년 일제에 의하여 만주사변이 발생하자 한국독립군은 북만에서, 조선혁명군은 남만에서 일제에 대항하여 한중연합전선을 결성,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한국독립군이 행한 대표적인 전투로는 대전자령 전투, 조선혁명군의 경우

는 영롱가전투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활발하게 투쟁을 전개하던 가운데 독립군 중 한국독립군은 임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1933년 중국본토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잔여부대는 최약, 안태진 등의 지휘하에 목릉, 밀산 등 산림지대로 옮기며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혁명군은 이미 1932년부터 간부진이 남경 방면을 왕래하면서 중국 정부에 지원교섭을 벌였으며, 주로 남경, 광주 방면에 체류하면서 임시정부와 연락하며 새로운 항일전을 준비하였다. 일면 최근의 연변지역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중국동부지역에 남아있던 조선혁명군은 1937년까지 계속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한편,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은 중국인들과 연합하여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등을 조직, 1930년대 후반까지 계속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V. 결 론

중국동부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몇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동북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은 재만동포들의 지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중국본토, 미주 등지와는 달리 다수의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들이 바로 군자금의 제공원이며 독립군 병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독립운동단체들은 동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고심하였다. 그들은 동포들의 지지를 받았을 경우에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청산리, 봉오동전투에서의 승리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동북지역의 각 독립운동단체에서 시행한 정책, 제도 등은 이러한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1910년, 20년대 중반까지는 독립운동자 중심의 조직이 허다하였다. 그

는 영롱가전투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활발하게 투쟁을 전개하던 가운데 독립군 중 한국독립군은 임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1933년 중국본토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잔여부대는 최약, 안태진 등의 지휘하에 목릉, 밀산 등 산림지대로 옮기며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혁명군은 이미 1932년부터 간부진이 남경 방면을 왕래하면서 중국 정부에 지원교섭을 벌였으며, 주로 남경, 광주 방면에 체류하면서 임시정부와 연락하며 새로운 항일전을 준비하였다. 일면 최근의 연변지역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중국동부지역에 남아있던 조선혁명군은 1937년까지 계속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한편,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은 중국인들과 연합하여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등을 조직, 1930년대 후반까지 계속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V. 결 론

중국동부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몇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동북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은 재만동포들의 지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중국본토, 미주 등지와는 달리 다수의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들이 바로 군자금의 제공원이며 독립군 병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독립운동단체들은 동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고심하였다. 그들은 동포들의 지지를 받았을 경우에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청산리, 봉오동전투에서의 승리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동북지역의 각 독립운동단체에서 시행한 정책, 제도 등은 이러한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1910년, 20년대 중반까지는 독립운동자 중심의 조직이 허다하였다. 그

러므로 일제에 의한 독립운동간부의 체포, 사망에서 독립운동단체의 성취가 많이 좌우되는 일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지도자들에 의하여 효과적인 대일투쟁의 전개가 가능하였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청산리 전투의 김좌진 등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밖에도 서일, 오동진, 전덕원, 이범석, 김규식, 오광석, 이청천, 안무, 김동삼, 이상룡, 양세봉 등 많은 민족주의 지도자와 허형식 등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한 지도자들을 들 수 있다.

셋째, 1910년대에는 공화주의 이념과 조선왕조의 재건을 주장하는 복벽주의 이념의 단체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단체들이 공화주의 정치이념을 채택하였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북간도지역에서 조직된 단체들이 서간도 지역에서 조직된 단체들보다 빨리 공화주의 사상을 수용하였다는 점이다. 서간도 지역의 경우에는 1920년대 전반기 대한통의부가 공화주의 계열과 복벽주의 계열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운동의 약화를 초래한 것은 물론 심지어는 동족끼리 서로 살상하는 비극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진통을 겪은 후 서간도 지역에도 공화주의 이념이 정착되었다. 그리고 정의부에서는 이러한 이념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다.

넷째, 투쟁노선에 있어서 무장투쟁노선과 교육·산업우선주의를 지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다수의 재만독립운동단체들은 무력을 통하여 조국의 해방을 이루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한 민족정신의 고양과 산업의 발전을 통한 군자금의 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양자의 대립으로 운동의 역량을 약화시키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신민부가 교육산업을 우선시하는 민정파와 무장투쟁을 우선시하는 군정파로 나뉘어 분열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일본제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독립운동가들은 다양한 조직을 구상하였다. 대한국민회동의 회,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등 군정서, 대한 독립단 등의 단, 대한통군부, 대한통의부, 의군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등 부, 고려혁명당, 한국독립당, 조석혁명당 등의 당, 한족총연합회, 한족자치연합회 등의 연합회, 군정부 등 정부 형태등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만주사변 이후 1933년에 이르기까지 한국독립군은 중국군과 연합하여 중국동북지역에서 반만항일전을 계속하였으나 일제의 막강한 군사력과 중국군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후일의 운동을 기약하고 임시정부와의 연락하에 중국관내로 이동, 중국본토에서 광복군을 설립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그리고 중국 동북지방에 잔존한 독립군은 지도자를 잃은 채 항일전을 계속하였지만, 결국은 좌절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력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었다. 결국 만주는 이로써 더이상 민족진영 운동의 근거지가 될 수 없었다. 한편 한인공산주의자들은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연합하여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등을 조직하여 1930년대 후반까지 반만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일곱째, 독립운동단체들은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을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10년대 20년대에는 민족진영의 단체에서 다수 보이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독립운동단체들은 분열되고 약화되는 면모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일면으로 그러한 경향은 운동단체 내부의 단결을 공고히 해주는 역할도 하였다. 종교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북로군정서는 단군을 신앙하는 대종교, 대한국민회는 기독교 인들이 중심이 됨으로써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학연, 지연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하는 방법 역시 일본 첩자의 감시하에서 운동단체를 조직하는 한 유효한 방법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방법은 이념을 중심으로한 조직 방법으로 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할 경우 운동단체는 보다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주 지역 운동 세력의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고려혁명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등 당의 조직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여덟째, 한국 독립운동자들은 독립전쟁론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대륙침략정책이 장차 중일전쟁, 미일전쟁까지 몰고 올 것이라고 하는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인 대일저항력의 강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성을 나타내었다.

이밖에도 중국동북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특성으로는 독립운동의 수행 방식에 있어서 막강한 일본군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대규모의 전투보다는 전술상 게릴라전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민족진영의 독립운동 근거지 가운데 일부는 깊은 산속에 위치하지 않고 도시와 滿鐵沿線의 부속지, 그리고 재만한인촌락에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관권 또는 밀정에게 발각되어 체포 구금되는 예가 많았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다음에는 중국동북지역의 독립운동과 중국 본토, 러시아, 미주, 국내 운동과의 상관관계를 몇가지 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독립운동과 중국본토와의 관계는 대체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언급될 수 있을 것 같다. 임시정부에서 만주지역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이 지역 독립군단체에 대한 통치권 행사는 상해 임시정부의 지리적 한계성과 군사활동의 제약을 극복,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정은 〈대한민국육군임시군구제〉의 제정을 통해 이 지역 한인사회를 군사활동의 인적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병행하여 임시정부에서는 특파원의 파견을 통해, 재만한인사회 및 항일독립군과의 연관관계 형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그 결과 3.1운동 직후에는 이 지역 거의 모든 단체들이 상해 임정을 지지하게 되었다. 서간도 지역의 대한

청년단연합회, 북간도 지역의 대한국민회 등은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에는 서간도 지역의 광복군사령부, 광복군 참리부, 참의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단체들이 임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 주된 배경은 임시정부의 위상 퇴락으로 인하여 재만독립군측에서 더이상 임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독립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재만독립군들은 임정으로부터 재정, 군사적인 측면 등 실제적인 면에서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고, 국제간의 외교적인 교섭 등을 통하여는 독립의 획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임정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러시아지역운동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중국 본토와 달리 러시아 지역은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중국 동북지역과는 하나의 운동권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지역 간에는 운동자의 이동, 무기의 공급, 군자금의 제공, 운동단체의 교류, 군사교관의 파견 등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특히 3.1운동 직후에는 러시아지역에서 다수의 무기들이 만주 지역에 공급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무장투쟁이 가능할 수 있었다.

미주 지역과의 관계는 그렇게 밀접하지 않았던 것 같다.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측면과 운동 방략에서의 차이 등이 그 원인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다만 구한말과 1910년대 전반기까지 미주의 국민회, 대한인국민회의 영향력이 러시아 지역에 강하게 미칠때 이들 단체의 영향이 만주 지역, 특히 하얼빈, 묵룡현 등지에 작용하였던 것 같다. 그리하여 1910년대 초반 대한인 국민회 만주 총회가 하얼빈에 설치되기도 하였다. 1910년대 이후에는 북간도 지역에서 조직된 대한국민회가 기독교 단체로서 미주 대한인 국민회와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특히 정제면이 그 연결 고리 역할을 하였다. 서간도 지역에서 조직된 서로군정서에도 미국에서 활동하던 박용만이 주요 간부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에는 중국동북지역의 운동과 미주 지역운동

과의 관계는 별로 살펴볼 수 없다.

국내와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중국동북지역에서 조직된 운동단체들 가운데 많은 단체들이 무장투쟁을 추구하였고, 그들의 당면 과제는 국내진공에 있었다. 사실상 국내와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이것은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3.1운동 직후에는 수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이 이를 시도하였다. 광복군사령부의 활동은 대표적인 것이었다. 진공지역은 평안도, 함경도 지역의 국경연안 지역이 대부분 이었다. 한편 독립운동단체들 가운데에는 국내에 지부를 조직하여 국내의 진공시 호응을 얻으려고 한 단체들도 있었다. 예컨대 김좌진등이 북만주에서 1920년대 중반에 조직한 신민부에서는 이를 위하여 대원들을 파견하여 국내를 정찰하기도 하였으며, 3.1운동직후 서간도에서 유학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독립단에서는 한강 이북 지역에 국내 조직을 갖추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단체들의 이러한 진공, 조직 활동도 1910년 -1920년대에 국한되었으며, 3.1운동 직후에 가장 활발하였다.

